

병원 내 도서관의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Service for Patients and Carers in the Library in Hospital

신 영 지 (Youngji Shin)*

이 석 형 (Seok Hyoung Lee)**

노 영 희 (Younghee Noh)***

< 목 차 >

I. 서 론	IV. 연구결과
II. 선행연구	V. 논 의
III. 연구내용 및 방법론	VI. 결론 및 제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병원 내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현재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도서관 서비스 현황과 향후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병원 내 도서관의 의무적 설립을 위한 법 제정과 병원 내 도서관의 규모, 장서, 인력 등에 대한 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병원도서관을 의무적·자발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셋째, 지역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운영이 고려되어야 한다.

주제어: 병원도서관, 의학도서관, 도서관 서비스, 환자 및 보호자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library services for patients and carers and conducted an awareness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library services for patients and carers in hospitals in Korea and on future library services for patients and carers. Through this, the ways to activate library services for patients and carers in the hospital were sough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research team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the legislation for the mandatory establishment of libraries in hospitals and standards for the size, book collection, and manpower of libraries in hospitals should be enacted. Second,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essential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mandatory and voluntary establishment of hospital libraries at the national level in the future. Third, the operation of regional representative libraries, public libraries, and other institutions should be considered.

KEYWORDS: Hospital Library, Medical Library, Library Service, Patients and Carers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수료(gee910125@gmail.com / ISNI 0000 0004 7936 7250) (제1저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 융합서비스센터 책임연구원
(skyi@kisti.re.kr / ISNI 0000 0004 6771 8906) (교신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ISNI 0000 0000 4120 5652) (공동저자)

• 논문접수: 2020년 8월 20일 • 최초심사: 2020년 8월 25일 • 게재확정: 2020년 9월 14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3), 149-169, 2020. <http://dx.doi.org/10.16981/kliss.51.3.202009.149>

I. 서론

최근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관심은 도서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문화가정, 저소득계층,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수 환경에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신영지, 노영희 2019c). 그러나 취약계층 중 하나인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은 극히 드문 상황이다.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병원도서관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면서 최근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실질적인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정책 및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의 경우, 병원 내에 의료진 및 간호사 등을 위한 의학도서관이 다수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도서관법』 제2조 4항에 정의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은 거의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을 설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나, 몇몇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한카드, 현대해상 등 기업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설립되어 지속적인 운영보다는 지원받은 도서를 비치하여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영지, 노영희 2019b). 이는 모기관과의 연계 없이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아 설립되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산 및 인력, 장서 등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외의 경우,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서비스 및 프로그램, 여가활동과 힐링을 위한 공간 등을 제공하는 도서관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마요 클리닉(Mayo Clinic) 병원의 병원도서관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책, 잡지, 오디오북, DVD, 보드게임과 컴퓨터 이용 및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들을 위해 북카트에 도서를 실어 병실을 찾아다니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백원근 2019; 연합뉴스 2018). 더불어 국외의 경우 각 나라별로 병원도서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건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서, 건강정보전문가, 의학전문사서, 건강교육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의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과 더불어 다양한 정보원 제공, 건강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지역 도서관과 연계한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영, 2019a).

이에 본 연구에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병원 내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현재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도서관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더불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병원 내 도서관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의학도서관과 병원도서관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된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병원 내 도서관 중 환자 및 보호자와 관련한 연구가 국내에 최근 다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관련 연구들은 전반적인 개념에 대한 연구, 병원도서관 기준에 대한 연구, 국외 사례를 기반으로 연구, 운영실태 분석 연구, 통계지표 개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먼저, 신영지와 노영희(2018)는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 유형을 모두 도출하여 각 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들의 명칭 및 개념을 정리하였다. 더불어 이해영(2018)은 국내 병원도서관과 관련과 기준 및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병원도서관이 「도서관법」에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과 규모, 장서, 인력 등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국외사례를 기반으로 한 연구로 병원도서관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환자서비스 유형 및 현황에 관한 연구(이혜영 2019a)와 국외 병원도서관에서의 환자이용자를 위한 건강정보서비스 사례연구(이혜영 2019b) 등이 진행되었다. 해당 연구를 통해 국가별로 병원도서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현재 국외 병원도서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유형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향후 국내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건강정보서비스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서울시에 소재한 병원 내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수요조사에 관한 연구(신영지, 노영희 2019a), 병원도서관 운영실태조사(신영지, 노영희 2019b), 병원도서관 통계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신영지, 노영희 2019c)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이론 및 해외사례조사, 현황조사, 수요 및 만족도 조사 등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병원 내 병원도서관에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병원 내 도서관에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현황을 조사하고, 더불어 향후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Ⅲ. 연구내용 및 방법론

본 연구는 의학도서관과 병원도서관으로 구분하지 않고, 현재 병원 내에 설립된 도서관을 대상으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병원 내 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현황과 향후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연구내용을 수행하였다.

1. 설문대상 선정 및 진행 절차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인 83개의 병원 내 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20년 5월 4일부터 2020년 5월 24일까지로 약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설문요청은 도서관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83곳 중 65곳에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그 중 총 34곳이 회신하여 회신률은 52.30%이다.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해 설문지 회수율이 30~40%인 것을 감안하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설문 연구 설계

구분	방법
설문대상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 병원 내 도서관 83개관
설문기간	2020.05.04 - 2020.05.24
설문방법	사서분들께 직접 전화하여 설문 요청을 드린 후, 온라인 설문지 발송
회신률	총 83곳 중 거절한 18곳 제외 65곳 배포 ⇨ 34곳 회신으로 52.30%

2. 설문 내용 및 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개발을 위해 박정미(2012), 김의연(2015) 연구자 등이 개발한 설문지와 한국도서관기준(한국도서관협회 2013), 이해영(2019a: 2019b), 신영지, 노영희(2019b)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병원 내 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와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관련 인식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문항은 크게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일반사항,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 등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영역별 자세한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2〉 설문지 구조

구분	설문문항	출처
응답자 및 소속 병원 관련 사항	소속 병원의 유형	김의연(2015)
	도서관 조직상의 위치	김의연(2015)
	도서관 근무 경력	문항개발
	사서자격증 소지 여부	문항개발
	응답자의 신분	문항개발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여부	문항개발
	제공 시 제공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박정미(2011)
	환자 및 보호자 서비스를 위한 협력 기관	문항개발
	환자 및 보호자 서비스를 위한 협력 기관과의 협력사항	문항개발
	환자 및 보호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	문항개발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별도의 도서관 설립 여부 및 설립유형	문항개발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	병원도서관 담당부서	문항개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필요성	문항개발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범위 확대 의향	문항개발
	병원도서관에서 이루어져야 할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의견	이혜영(2019a)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	문항개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해 도서관에 요구되는 주된 역할	문항개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여건	문항개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협력 기관	문항개발	
	그 외 기타의견	문항개발

IV. 연구결과

1. 일반사항

가. 인구통계학적 특징

본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도서관 근무경력, 사서자격증 소지여부, 신분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으며, 응답 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도서관 근무경력은 5년 이상~10년 미만과 20년 이상(29.41%), 15년 이상~20년 미만(20.59%), 5년 미만(14.71%), 10년 이상~15년 미만(5.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서자격증 소지여부로는 2급 정사서 82.35%, 1급 정사서 11.77%로 나타나 대부분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의 경우, 사서(82.35%), 직원(8.82%), 총무과, 의무기록실 등 행정부서 직원(2.9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경우 사무기술원과 총무과 소속 사서로 행정업무 함께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병원 내 도서관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서가 대부분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징

구분		N	%
도서관 근무경력	5년 미만	5	14.71
	5년 이상~10년 미만	10	29.41
	10년 이상~15년 미만	2	5.88
	15년 이상~20년 미만	7	20.59
	20년 이상	10	29.41
사서자격증 소지여부	1급 정사서	4	11.77
	2급 정사서	28	82.35
	준사서	0	0.00
	자격증 미소지	2	5.88
신분	사서	28	82.35
	직원	3	8.82
	총무과, 의무기록실 등 행정부서 직원	1	2.94
	기타	2	5.88

나. 소속 병원의 유형

소속 병원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이 73.53%, 상급종합병원이 23.53%로 나타나, 대부분의 병원 내 도서관은 종합병원 내에 설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소속 병원의 유형

구분	N	%
상급종합병원*	8	23.53
종합병원**	25	73.53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1	2.94
요양병원	0	0.00
의원·치과의원·한의원	0	0.00
기타	0	0.00
계	34	100.00

*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 100~500병상 미만이면서 일정 수의 진료과목이 있고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두는 등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병원

다. 도서관의 조직상 위치

도서관이 병원 행정조직상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교육연구부 등 진료지원 부서 58.82%, 독립부서 23.53%, 총무과, 의무기록실 등 행정부서 11.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수련교육부와 병원 연구소 내 연구부서에 위치한 곳도 있었다. 병원은 일반적으로 진료부서

와 행정부서로 나뉘는데, 도서관이 두 부서 중 어느 한 곳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도서관의 목적이 환자진료와 교육, 연구 등을 돕고, 도서관의 주 이용자가 의료진이라는 점에서 진료부서에 많이 소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타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도서관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와 겹치하고 있는 곳이 많아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원 내 도서관의 필요성, 중요성, 인지도, 관심도 등이 낮아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진료 지원 및 행정부서 내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소속 병원의 유형

구분	N	%
독립	8	23.53
교육연구부 등 진료지원부서	20	58.82
총무과, 의무기록실 등 행정부서	4	11.77
기타	2	5.88

2.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현황

가. 환자 및 보호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제공 여부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곳이 85.29%, 제공하고 있는 곳은 14.71%로 나타나, 현재 병원 내 도서관들은 대부분 의료진 및 간호사,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환자 및 보호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제공 여부

구분	N	%
예	5	14.71
아니요	29	85.29
계	34	100.00

나. 환자 및 보호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현황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자료열람 및 대출서비스가 80.00%로 주를 이루었으며, 이와 함께 병실로 찾아가는 북카트 서비스와 독서치료 프로그램(40.00%), 저자 초청 간담회(20.00%) 등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보아 아직까지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을 제공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양하지 않고, 기본적인 도서 열람 및 대출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7〉 환자 및 보호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현황(복수응답)

구분	N	%
자료열람 및 대출	4	80.00
질병관련 근거기반 의학정보 제공	0	0.00
독서치료 프로그램	2	40.00
저자 초청 간담회	1	20.00
환자 상황별 추천도서	0	0.00
환자 독후감 뉴스레터 발간	0	0.00
병실로 찾아가는 북카트 서비스	2	40.00
이용자교육	0	0.00
기타	0	0.00

다. 협력기관 및 협력사항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학도서관이 40.00%로 나타났으며 타 병원 내 도서관과 기타로 현대해상, ARCON 등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협력기관과의 협력사항은 장서 지원과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이 60.00%로 주를 이루었다.

현재 병원 내 도서관은 대부분 전문의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체적으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장서, 프로그램, 예산, 인력 등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8〉 환자 및 보호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기관 및 협력내용(복수응답)

구분		N	%
협력기관	협력기관 없음	1	20.00
	타 병원 내 도서관	1	20.00
	대학도서관	2	40.00
	기타	2	40.00
협력사항	장서 지원 (순회문고 등)	3	60.00
	상호대차서비스	1	20.00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60.00
	협력사항 없음	1	20.00

라. 환자 및 보호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

병원 내 도서관에서 환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 할 인력 및 예산 부족’이 51.72%로 나타났으며, ‘환자

및 보호자는 귀하의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34.48%. '환자 및 보호자가 이용할 만한 장서 부족'이 각각 24.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별도의 도서관 서비스가 원목실, 환자문고, 사회사업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또는 감염 문제 및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이용 대상이 아니어서가 아닌 제공할 인력 및 예산, 장서가 부족하여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과반 수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의사는 있지만 여건 부족하여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표 12〉 참조). 이에 향후 도서관의 예산 및 인력, 장서 등이 확보된다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재 설립된 병원 내 도서관들은 대부분 전문의를 대상으로 연구와 진료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환자 및 보호자는 해당 도서관에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현재 설문조사 결과와 더불어 기존 선행연구(노영희, 신영지 2019a)에서도 나타났다.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이 별도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구분되어 운영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이용 대상 확대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요즘은 전문도서관들이 일반인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추세로, 이에 발맞춰 병원 내 도서관도 이용 대상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표 9〉 환자 및 보호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 (복수응답)

구분		N	%
환자 및 보호자는 해당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		10	34.48
환자 및 보호자가 이용할 만한 장서 부족		7	24.14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 할 인력 및 예산 부족		15	51.72
환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없음		1	3.45
기타	타 부서(원목실, 사회사업실 등)에서 도서관 서비스 제공	6	20.69
	감염 문제	2	6.90
	공간 부족	1	3.45

마.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설치 여부 및 설립유형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별도의 도서관 설치 여부 및 설립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없는 곳이 41.18%로 나타났으며, 도서관으로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타 부서에 유사 서비스인 도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26.47%로 나타났다. 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곳도 17.65% 있었으며, 현대해상, 신한카드 등 타 기관의 지원사업으로 설립된 곳도 8.82%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의 일환으로 병원도서관을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은 거의 없었으며, 타 부서인 사회사업실, 자원봉사자실, 신우회, 사회사업팀, 종교실 등에서 환자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서대출서비스 및 이동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설치 여부 및 설립유형

구분	N	%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별도의 도서관 없음	14	41.18
모른다 (설립이 되어 있는 건 알지만 유형에 대해서는 모른다)	2	5.88
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설립	6	17.65
현대해상, 신한카드 등 타 기관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3	8.82
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지원으로 설립	0	0.00
타 부서에서 유사 서비스 제공	9	26.47
기타	0	0.00

바.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의 담당부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를 분석한 결과, 사회사업실에 주로 담당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종교실, 수련교육부 산하 의학정보실, 신우회, 교육수련팀, 교육수련지원팀, 자원봉사와 기획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의 담당부서

구분	N	%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별도의 도서관 없음	14	41.18
모른다 (설립이 되어 있는 건 알지만 담당부서에 대해서는 모른다)	3	8.82
총무과	2	5.88
사회사업실	7	20.59
종교실	4	11.76
원무과	0	0.00
기타	4	11.76

3.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가. 환자 및 보호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필요성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55.88%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필요하지 않다가 11.76%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 내 도서관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연구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지만,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2〉 환자 및 보호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필요성

구분	N	%	M	Std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5.88	3.44	0.927
필요하지 않다	2	5.88		
보통이다	11	32.35		
필요하다	17	50.00		
매우 필요하다	2	5.88		
계	34	100.00		

나. 향후 이용자 범위 확대 여부

향후 환자 및 보호자까지 이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없다가 67.64%, 있다가 11.76%로 나타나 현재 병원 내 도서관들은 대다수 이용자 범위 확대에 부정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앞서 조사한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 문항의 응답에서 나타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및 예산 부족’과 ‘환자 및 보호자는 귀하의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주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표 9〉 참조).

즉,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표 12〉 참조), 현재 별도의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설립은 관련 예산 및 인력 부족, 경영자 인식 부족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표 15〉 참조), 우선적으로 현재 설립된 병원 내 도서관의 이용대상 범위 확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 및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장서, 예산, 인력 등을 지원 받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대표도서관, 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연계를 통해 순회문고, 순회사서, 연계 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3〉 향후 이용자 범위 확대 여부

구분	N	%	M	Std
전혀 없다	11	32.35	2.15	1.077
없다	12	35.29		
보통이다	7	20.59		
있다	3	8.82		
매우 있다	1	2.94		
계	34	100.00		

다. 향후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적합도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현재 외국 병원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제시하였으며(이혜영 2019a), 크게 정보획득과 정신적 심적 치유서비스로 구분하여 적합

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정보획득과 관련하여, 병실로 찾아가는 북카드 서비스가 평균 3.88, 대출열람 3.74, 건강정보활용 교육 3.05, 인터넷서비스 3.38 등의 순으로 필요도가 나타났다. 환자 및 보호자의 경우 이동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카드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도서관 서비스인 대출열람서비스에 대한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신적 심적 치유서비스에서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이 평균 3.50, 북콘서트 3.47, 독서치료 3.41, 강연프로그램 3.35, 큰책읽어주기 3.27, 예술 및 공예 프로그램 3.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도서 그림 전시회와 미술 치료에 대한 의견도 나타났다.

향후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자체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지역 공공도서관이나 사회복지기관, 문화재단 등과 같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공함이 병원도서관의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도 가능할 것이다.

<표 14> 향후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적합도

구분	서비스 항목	매우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M	Std	
		N	%	N	%	N	%	N	%	N	%			
정보획득	대출열람	3	8.82	2	5.88	5	14.71	15	44.12	9	26.47	3.74	1.189	
	상호대차	8	23.53	11	32.35	7	20.59	6	17.65	2	5.88	2.50	1.212	
	인터넷서비스	4	11.77	3	8.82	6	17.65	18	52.94	3	8.82	3.38	1.155	
	병실로 찾아가는 북카드 서비스	2	5.88	0	0.00	6	17.65	18	52.94	8	23.53	3.88	0.977	
	참고정보서비스	4	11.77	6	17.65	11	32.35	11	32.35	2	5.88	3.03	1.114	
	이용지도	3	8.82	6	17.65	13	38.24	10	29.41	2	5.88	3.06	1.043	
	정보활용교육	5	14.71	6	17.65	13	38.24	8	23.53	2	5.88	2.88	1.122	
	건강정보활용교육	2	5.88	6	17.65	6	17.65	13	38.24	7	20.59	3.50	1.187	
정신적 심적 치유 서비스	문화, 재활, 오락 프로그램	예술 및 공예 프로그램	4	11.77	5	14.71	6	17.65	17	50.00	2	5.88	3.24	1.156
		영화 또는 슬라이드 쇼	4	11.77	7	20.59	5	14.71	14	41.18	4	11.77	3.21	1.250
		독서문화프로그램	2	5.88	5	14.71	6	17.65	16	47.06	5	14.71	3.50	1.108
		큰책읽어주기	3	8.82	6	17.65	8	23.53	13	38.24	4	11.77	3.27	1.163
		북콘서트	3	8.82	2	5.88	8	23.53	18	52.94	3	8.82	3.47	1.051
		강연프로그램	4	11.77	4	11.77	5	14.71	18	52.94	3	8.82	3.35	1.178
		에완동물 치료견 프로그램	9	26.47	10	29.41	8	23.53	5	14.71	2	5.88	2.44	1.211
		요가	10	29.41	10	29.41	6	17.65	7	20.59	1	2.94	2.38	1.206
		가벼운 운동	8	23.53	8	23.53	7	20.59	6	17.65	5	14.71	2.77	1.394
		명상	7	20.59	8	23.53	7	20.59	8	23.53	4	11.77	2.82	1.336
		음악치료	7	20.59	8	23.53	6	17.65	8	23.53	5	14.71	2.88	1.387
		독자자문 (지도)서비스	6	17.65	5	14.71	10	29.41	11	32.35	2	5.88	2.94	1.205
		독서상담서비스	5	14.71	4	11.77	9	26.47	12	35.29	4	11.77	3.18	1.242
		독서치료	3	8.82	4	11.77	9	26.47	12	35.29	6	17.65	3.41	1.184
		목회치료	7	20.59	12	35.29	9	26.47	4	11.77	2	5.88	2.47	1.134

라.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 내 도서관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 내 도서관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 내 도서관 설립과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 부족이 88.24%로 나타났으며,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 내 도서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 부족과 병원 경영진의 인식 부족이 각각 44.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가 주요 요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법적·제도적으로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설립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예로 설립의 강제성을 가진 법 제정,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가적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존 설립된 병원 내 도서관이 지역 내 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우선적으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여 병원 경영진의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5〉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 내 도서관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구분	N	%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 내 도서관에 대한 인식 부족 (환자 및 보호자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에 개념을 모름)	5	14.71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 내 도서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 부족 (설립의 강제성을 가진 법 제정,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가적 지원 등)	15	44.12
병원 경영진의 인식 부족	15	44.12
환자 및 보호자의 요구 부족	5	14.71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 내 도서관 설립과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 부족	30	88.24
기타	4	11.76

마.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해 병원 내 도서관에 요구되는 주된 역할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해 병원 내 도서관에 요구되는 주된 역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여가시간 활용 및 정서적 함양 지원이 평균 4.03, 환자와 보호자에게 다양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3.65,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제공 3.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 및 보호자에게 도서관이 제공해야할 서비스는 기본적인 자료열람 및 대출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 여가시간 및 정서적 힐링이 요구될 것이다. 더 나아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다양한 건강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환자 및 보호자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병원 내 도서관이 가져야할 특징 중 하나이다.

〈표 16〉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해 병원 내 도서관에 요구되는 주된 역할

서비스 항목	매우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M	Std
	N	%	N	%	N	%	N	%	N	%		
환자 및 보호자의 알권리 충족	1	2.94	5	14.71	12	35.29	13	38.24	3	8.82	3.35	0.950
환자와 보호자에게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0	0.00	3	8.82	12	35.29	13	38.24	6	17.65	3.65	0.884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제공	2	5.88	1	2.94	13	38.24	14	41.18	4	11.77	3.50	0.961
이용자의 문화 요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1	2.94	5	14.71	9	26.47	16	47.06	3	8.82	3.44	0.960
여가시간 활용 및 정서적 함양 지원	0	0.00	1	2.94	6	17.65	18	52.94	9	26.47	4.03	0.758
환자의 사회복귀 지원	2	5.88	3	8.82	14	41.18	11	32.35	4	11.77	3.35	1.012

바.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 내 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여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 내 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여건을 분석한 결과,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 내 도서관 설립 시 모기관과의 연계 체계가 평균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성 및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체계 구축 4.27,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 내 도서관을 위한 국가적으로 제도 및 지원 확대 4.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 내 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여건

서비스 항목	매우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M	Std
	N	%	N	%	N	%	N	%	N	%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 내 도서관 설립 시 모기관과의 연계 체계 (공간확보 인력 배치, 예산 등)	1	2.94	0	0.00	4	11.77	12	35.29	17	50.00	4.29	0.906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 내 도서관을 위한 국가적으로 제도 및 지원 확대 (병원도서관 설립을 위한 법 개정, 병원도서관을 위한 지원금 제도 등)	1	2.94	0	0.00	5	14.71	13	38.24	15	44.12	4.21	0.914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의료법 개정 등)	1	2.94	1	2.94	9	26.47	9	26.47	14	41.18	4.00	1.044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지원 체계 구축 (장서, 연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순회사서 등)	1	2.94	2	5.88	7	20.59	13	38.24	11	32.35	3.91	1.026
전문성 및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체계 구축	0	0.00	0	0.00	5	14.71	15	44.12	14	41.18	4.27	0.710

사.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 기관

향후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기관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공도서관(58.82%), 지역대표도서관(50.00%)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 관련 유사기관(41.18%), 의학도서관(29.41%), 타 병원도서관과 의료분야 관련 유사기관(23.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은 기본적인 자료열람 및 대출, 문화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건강 정보 등의 전문적인 정보 제공도 필요로 함으로 협력기관으로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정보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의학 관련 도서관들과의 협력도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8〉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 기관형(복수응답)

구분	N	%
협력체계 필요 없음	3	8.82
타 병원도서관	8	23.53
의학도서관	10	29.41
지역대표도서관	17	50.00
공공도서관	20	58.82
대학도서관	4	11.76
전문도서관	2	5.88
의료분야 관련 유사기관	8	23.53
지역 문화 관련 유사기관	14	41.18

V. 논 의

본 연구에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병원 내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환자 및 보호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더불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일반사항,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 등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분석을 통해 정리된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9〉와 같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 내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제도 개선, 기관간의 연계 등의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병원 내 도서관의 의무적 설립을 위한 법 제정과 병원 내 도서관의 규모, 장서, 인력 배치 등에 대한 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선 법 제정을 통해 병원 내 도서관의 설립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의 기타의견에서 현재 설립된 도서관도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뒷받침

〈표 19〉 설문조사 분석 기반 핵심사항

구분	내용			
설문조사 분석 기반 핵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서비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하는 곳은 14.71%에 불과하며, 현재 자료 열람 및 대출서비스만 이루어 짐 - 협력기관은 대학도서관 또는 타 기업 등과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협력사항으로는 장서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서비스 제공하지 않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 할 인력 및 예산 부족 - 환자 및 보호자는 귀하의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 - 환자 및 보호자가 이용할 만한 장서 부족 ■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성) 환자 및 보호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는 55.88%가 필요하다고 인식, 그러나 향후 이용 대상 확대 생각은 없음 - (서비스 적합도) 병실로 찾아가는 북카드 서비스, 대출열람, 독서문화프로그램, 복원서트, 독서치유, 건강정보활용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 - (운영의 문제점) 예산 및 인력 부족, 법적 제도적 체계 부족, 병원 경영진의 인식 부족 - (주요 역할) 여가시간 활용 및 정서적 함양, 다양한 지식정보서비스,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제공 등 - (주요 개선사항) 모기관과의 연계 체계, 전문성 및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체계 구축, 국가적으로 제도 및 지원 확대 등 			
	↓			
분석 기반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설립되어 있는 병원 내 도서관은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이 아닌 전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도서관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는 실정 ▶ 현재 병원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조차 예산삭감, 공간축소, 계약직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이에 별도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설립은 불가한 상황이며, 기존 도서관에서의 이용자 확대를 통한 환자 및 보호자 서비스 제공 또한 예산, 공간, 인력, 장서 부족 등으로 어려운 상황 ▶ 이에 환자 및 보호자 운영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운영하기 보다는 공공도서관 및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운영이 우선 필요하며,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 법적 근거 개정이 필요한 상황 			
↓				
중요 핵심사항	법적 제도 개선 필요	부처간의 협력 및 지원 사업 필요	기관간의 연계 필요 (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등)	장서 및 인력 확보 필요

되고 있지 않아 병원 평가항목에 반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역할로 운영되고 있으며, 점차 예산 및 공간이 축소되고 있어 설립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적인 요건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 없이는 현장에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에 운영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여건이 안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및 국공립병원부터 의무화를 시작으로 점차 그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또한 병원도서관 제공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재지정 평가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이혜영 2018; 신영지, 노영희 2019a). 또한 병원도서관 공간, 장서, 인력 배치 등에 대한 기준 또한 제정되어야 한다. 예로 병영도서관의 경우, 국방부에서 「병영도서관 운영훈령」을 제정하여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장병들에게 정보와 지식·문화에 대한 욕구충족 및 정서함양의 기능을 제공하며, 건전한 병영문화의 여건 조성을 통해 장병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병영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훈령에는 병영도서관 설립기준, 업무, 시설 및 자료 기준, 인력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계에서도 병원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타 도서관의 정보와 마찬가지로 제공 현황 및 실태·수치를 매년 한국도서관연감을 통해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병원도서관을 의무적·자발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보인다. 병영도서관 및 교도소도서관도 국방부와 법무부와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병원도서관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병원도서관이 장기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기관인 병원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앞서 설문결과에서 향후 병원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여건으로 모기관과의 연계체계가 가장 높게 나온 것(〈표 17〉 참고)과 같은 맥락으로 병원도서관의 공간 확보, 예산, 인력 등을 고려했을 때,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통해 해당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영도서관의 경우,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영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2003년부터 대대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장윤금 외 2018),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가 협업으로 병영독서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부대를 담당할 260명의 강사들과 함께 하는 독서코칭 강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극복법을 공유하며, 실전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에 병원도서관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설립 지원, 장서 및 인력 지원 등에 대한 지원사업 및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역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운영이 고려되어야 한다. 법적 기준 제정 및 부처간의 협력 등은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에 현재 기준으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운영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해당 연구의 설문응답 및 기존 선행연구(홍기선 2005; 신영지, 노영희 2019a)에 따르면 운영의 어려움 중의 하나로, 적합한 장서 부족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 장서를 확보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나의 예로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에서는 지역 병원으로 신간 및 희망분야의 도서를 주기에 맞춰 교체 및 제공하는 순회문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표 20〉 참조). 이러한 순회문고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장서를 순환하여 장서의 최신성 및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방문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 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도서를 기증받는 것도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일년에 1회 또는 상반기/하반기별 1회씩 주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지역 내 병원도서관 장서 확보를 위한 기증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주최는 지역 시에서, 주관은 지역 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이 맡아 진행하며, 수집한 기증도서는 지역 내 병원도서관에 기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캠페인은 병원도서관의 장서 확보뿐만 아니라 병원도서관 홍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 20〉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병원 순회문고 서비스

병원명	문고명	개설년	운영기간	교체시기	대출권수
새희망병원	새희망문고	2006.02	20.04-23.03	4월, 10월	600
예인병원	예인문고	2009.03	20.04-23.03	6월, 12월	500
인천정병원	인천정문고	2019.07	19.07-22.06	6월, 12월	300
나은요양병원	나은문고	2019.07	19.07-22.06	6월, 12월	200
가천대길병원	길벗문고	2002.05	20.04-23.03	3월, 9월	200

더불어 인력과 관련하여 향후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최소 1명 이상의 담당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사서 또는 전담 인력 배치부터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향후 점차 병원도서관이 병원 내에서 자리 잡으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순회사서,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성을 가진 자원봉사자, 지역 내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한 인력 배치 등 보다 도서관 운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선 확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신영지, 노영희 2019b). 서비스 또한 자체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지역 공공도서관이나 사회복지기관, 문화재단 등과 같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공함이 병원도서관의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도 가능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병원 내 도서관에서 현재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도서관 서비스 현황과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 병원 내 설립된 도서관 중에서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극히 드물었으며,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도 도서 열람 및 대출서비스 정도였다. 이처럼 국내는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의 필요성 및 설립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다.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는 단순히 몸과 마음의 동시 치료로 치료 효과 상승,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계발로 사회복귀 후 적응력 제고,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행복감 제공, 환자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병원 측면에서도 소비자 만족도 제고 및 병원의 인지도 상승(타 병원과의 차별성), 의료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패러다임 변화, 병원 내 문화복지 증진 등의 이점을 줄 수 있다.

이에 향후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서는 첫째, 병원 내 도서관의 의무적 설립을 위한 법 제정과 병원 내 도서관의 규모, 장서, 인력 배치 등에 대한 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병원도서관을 의무적·자발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보인다. 셋째, 지역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운영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환자 및 보호자와 도서관 사서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어야 정확한 실태 파악과 요구조사가 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대상을 도서관 사서만으로 제한함으로써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 및 요구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에 추후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식과 요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실제로 환자 및 보호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의 경우, 사서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현황 및 인식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의연. 2015. 『종합병원 행정직원의 조직문화 인식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 도서관법.
<<http://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F%84%EC%84%9C%EA%B4%80%EB%B2%95>> [인용 2020. 5. 1].
- 메이네스타 ‘메이요 클리닉’, 3년연속 ‘미국 최고병원’ 등극. 2018. 『연합뉴스』. 8월 15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0815028300009>> [인용 2020. 8. 15].
- 박정미. 2012. 『사서의 독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조사: 병원 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 백원근. 2019. 병원에서 책과 만나는 감동 선물하길. 『한겨레』. 3월 29일.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87874.html#csidxe61be3a9e1a4bd1a5f9ecb1e8796f03>> [인용 2020. 5. 1].
- 신영지, 노영희. 2019a. 병원 내 도서관의 이용자 만족도 및 수요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3): 291-314.
- 신영지, 노영희. 2019b. 병원도서관 운영실태 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6(4): 21-52.
- 신영지, 노영희. 2019c. 병원도서관 통계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4): 143-170.

- 이혜영. 2018. 국내 병원도서관 관련 기준 및 현황.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4): 179-202.
- 이혜영. 2019a. 병원도서관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환자서비스 유형 및 현황.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2): 89-116.
- 이혜영. 2019b. 국외 병원도서관에서의 환자이용자를 위한 건강정보서비스 사례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3): 195-221.
- 장윤금 외. 2018. 병영도서관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3): 321-337.
- 홍기선. 2005.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2): 263-281.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k, Won-Geun. 2019. "I Wish You a Touching Present to Meet the Book at the Hospital." *Hankyoreh*. March 29.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87874.html#csidxe61be3a9e1a4bd1a5f9ecb1e8796f03>> [cited 2020. 5. 1].
- Chang, Yunkeum et al. 2018. "Current Operating Structures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Korean Militar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3): 321-337.
- Hong, Ki-Sun. 2005. "A Study for Activation of Consumer Health Information Serv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2): 263-281.
- Kim, Euiyoun. 2015. *A Study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Affective Commitment of General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Ph. D. diss.,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 Library Law.
<<http://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F%84%EC%84%9C%EA%B4%80%EB%B2%95>> [cited 2020. 5. 1].
- "Mayo Clinic, Minnesota, USA, Tops US Hospital for Three Consecutive Years." 2018. *Yonhap News*. August 15.
<<https://www.yna.co.kr/view/AKR20180815028300009>> [cited 2020. 8. 15].

- Park, Jung Mi. 2012. *A Survey on the Librarians Degree of Perception about Readers Advisory Services: Focused on the Hospital Libraries*. M. A.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ultural & Arts Kyonggi University.
- Rhee, Hey Young. 2018. "Guidelines and Status of Hospital Library in Korea: for Patients and Carer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4): 179-202.
- Rhee, Hey Young. 2019a. "Types and Status of Patient Services based on Hospital Library Guidelin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2): 89-116.
- Rhee, Hey Young. 2019b. "A Case Study of Health Information Service for Patient Users in Overseas Hospital Librari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3): 195-221.
- Shin, Youngji and Younghee Noh. 2019a. "A Study on User Satisfaction and Demand Survey of Libraries in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3): 291-314.
- Shin, Youngji and Younghee Noh. 2019b. "Analysis Study on the Operation Status of the Hospital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6(4): 21-52.
- Shin, Youngji and Younghee Noh. 2019c.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tatistical Indicators of Hospital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4): 143-170.